

연구자료

최근 중국의 농촌경제와 향진기업의 동향

조 준 현*

KeyWords

중국경제(Chinese Economy), 삼농문제(Three Agrarian Issues(San Nong in Chinese)), 삼대격차(Township & Village Enterprise(TVE)), 향진기업(Three Unevenness)

Abstract

After the declaration of economic reform in 1978, the Township & Village Enterprises(TVEs) had achieved remarkable achievements from 1980s to early 1990s. They acted very significant roles not only in the rural economy, but also in the whole Chinese economy. But during 1990s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TVEs became less and less. It was one of the main reason of recent Three Agrarian Issues(San Nong in Chinese; agriculture, countryside & farmers). But, it may sound paradoxical, because of very the reason, the essential clue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can be and should be find in TVEs. Recently, the TVEs are recording new growth. TVEs became more profitable, large-sized, employment-created and internationalized. Therefore, we Korean researchers and firms should give more attention on and accurately understand on the recent growth and the new status of the TVEs.

차례

1. 머리말
2. 최근 중국 농촌경제의 현황과 삼농문제
3. 향진기업의 최근 성장 추이
4. 맺는 말

* 中國人民大學當代中國研究中心特約研究員

1. 머리말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중국경제가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중국경제의 성장률을 산업부문별로 보면 개혁 초기에는 특히 농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산출물 증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는 이른바 ‘삼대격차’라는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11차 경제개발계획에 나타난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발전전략 수정도 지금 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성장 문제보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삼대격차는 계층간·지역간·도농간 격차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도농간 격차이다. 왜냐하면 도농간 격차가 지역간·계층간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농업·농민의 삼농문제 해결은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농촌경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향진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다. 개혁 초기인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경까지 향진기업이 중국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사영기업, 외자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중국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면서 향진기업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거의 벗어나고 말았다.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향진기업 관련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¹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의 농촌경제에서 향진기업은 규모와 비중 모두에서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면서 삼농문제 해결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향진기업에 대한 신연구와 재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삼농문제의 실태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 최근 향진기업의 성장추세와 성장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¹ 향진기업에 대한 국내의 주요한 연구는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강희정·최훈(1994), 김광익(1996), 김시중(1998), 김호·박준근(1996), 서석홍(1995), 이말남(1999), 이일영(1997) 등이 그것이다.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서석홍(2002), 이근·한동훈(2002), 장지용(2005) 등을 제외하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위의 문헌 중 이일영(1997)과 이근·한동훈(2002)은 향진기업만이 아니고 중국 농촌 및 산업경제 전반에 관한 연구이다.

2. 최근 중국 농촌경제의 현황과 삼농문제

2.1. 농촌경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최근 중국경제는 이른바 ‘삼대격차’라는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가 성장동력을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또한 이러한 삼대격차가 소비증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의 주요 연구들은 삼대격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도농간 격차, 즉 삼농(三農)문제에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중국의 소득격차(收入差距)에 대한 최근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성간 및 지역(동부·중부·서부)간 농촌지역끼리의 소득격차는 축소된 반면, 같은 지역 및省内에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何鍊成, 2005, p.407, <表 14-3> 및 <表 14-4>).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지만 그 원인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1985년 이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요소가격과 상품가격의 왜곡에 크게 의존해 왔다. 개혁 초기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농촌 및 농업이었지만, 1984년 10월의 제12기 2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의 개혁정책은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농촌 및 농업부문에서는 비교우위 이용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²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정부가 농촌의 비교우위 이용을 억제하였다는 것이다. 1989~1990년에 정부는 농민들에게 강제로 식량작물을 경작하게 하고 향진기업의 발전을 억제하였다. 그 결과 농민의 1인당 순소득은 1989년 8.4%, 1990년에는 1.5% 상승에 그쳤는데, 물가상승의 영향을 감안하면 이것은 1985년의 실질소득보다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었다.

중국경제의 성장률을 산업부문별로 보면 개혁의 초기에는 특히 농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산출물 증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50~1980년의 연평균 생산액의 성장을 보면 사회총생산액이 8%, 농업이 3.5%, 공업이 11.1%였던 데 반

² 1984년 10월에 채택된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은 사회주의 경제를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성 있는 상품경제”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개혁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中共中央黨校教務部, 2003, pp.177-97.). 즉 중국개혁의 제2단계는 계획적 상품경제론에 입각한 상품경제의 발달과 시장과 계획의 결합을 통하여 중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국영 기업을 비롯한 도시부문의 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여 1981~1985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각각 11%, 11.5%, 10.8%로 농업의 성장이 오히려 공업부문을 앞지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식량생산도 1978년의 3억 톤에서 1984년에는 4억 700만 톤으로 크게 증대하였다(서석홍, 1994, p.20). 특히 1개척 1단계인 1978~1984년 사이에 농업 산출량은 연평균 8.8%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농업의 이러한 발전은 주로 ‘농가경영청부책임제(農家經營請負責任制)’와 같은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에 특히 힘입은 것이었다. 1979~1984년 농업성장에서 경영방식의 기여도는 39.98%에 이른다<표 1>.

표 1. 농업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단위: %)

	토 지	노 동	기 계	화학비료	경영방식	가격변화	세계개혁	재정지원
1978~84	-1.86	1.56	8.91	34.49	39.98	0.11	-	-
	기간중 총성장율 52.5%, 연평균 7.5%							
1985~87	5.65	8.29	75.48	1.61	0.00	-6.28	-	-
	기간중 총성장율 8.2%, 연평균 2.7%							
1989~95	-0.52	-2.53	17.83	6.20	-	-4.85	-1.69	35.76
	기간중 총성장율 33.0%, 연평균 4.7%							
1996~02	0.62	0.57	5.88	28.04	-	0.23	-0.61	1.32
	기간중 총성장율 24.8%, 연평균 3.5%							
2003~04	6.16	2.87	15.32	9.54	-	1.98	22.89	23.40
	기간중 총성장율 6.3%, 연평균 6.3%							

자료: 喬榛 外, 『中國農村經濟分析和政策研究』, 『經濟研究』, 2006. 7., <表 3>에서 다시 계산.

둘째,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중국 농촌의 성장요인은 1985년 이전과 이후에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농가청부책임제의 실시에 의해 잠재적 생산성이 모두 발휘되긴 한 뒤 가격왜곡의 영향으로 새로운 비교우위가 발휘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농촌 및 농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공업 및 서비스부문이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그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국민 총소득에서 농업을 포함한 제1차 산업의 비중은 1978년 28.1%에서 1982년 33.3%, 1984년 32.0%를 기록하다가 2004년에는 15.5%로 하락하였고, 현급 이하 농촌의 비중도 같은 기간 67.5%에서 34.1%로 하락하였다(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社, 『中國農村統計年鑑』, 2005, p.12).

표 2. 농촌과 도시주민의 소득비교

단위: 위안, 농촌=1

연도	농 촌	도 시	도시/농촌
1978	134	343	2.56
1979	-	-	-
1980	191	478	2.50
1981	223	492	2.21
1982	270	527	1.95
1983	310	564	1.95
1984	355	651	1.82
1985	398	739	1.86
1986	424	900	2.12
1987	463	1,002	2.16
1988	545	1,181	2.17
1989	602	1,376	2.29
1990	686	1,510	2.2
1991	709	1,701	2.40
1992	784	2,027	2.59
1993	922	2,577	2.80
1994	1,221	3,496	2.86
1995	1,578	4,283	2.71
1996	1,926	4,839	2.51
1997	2,090	5,160	2.47
1998	2,162	5,425	2.51
1999	2,210	5,825	2.64
2000	2,253	5,854	2.60
2001	2,366	6,280	2.65
2002	2,476	7,703	3.11
2003	2,622	8,473	3.23
2004	2,936	9,422	3.21
2005	3,255	10,493	3.36

자료: 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中國農村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06, p.15.

표 3. 농촌과 도시주민의 소비지출 비교

단위: 위안, 농촌=1

	농촌	도시	비교
1978	138	405	2.9
1979	159	425	2.7
1980	178	489	2.7
1981	201	521	2.6
1982	223	536	2.4
1983	250	558	2.2
1984	287	618	2.2
1985	349	765	2.2
1986	378	872	2.3
1987	421	998	2.4
1988	509	1,311	2.6
1989	549	1,466	2.7
1990	560	1,596	2.9
1991	602	1,840	3.1
1992	688	2,262	3.3
1993	805	2,924	3.6
1994	1,038	3,852	3.7
1995	1,313	4,931	3.8
1996	1,626	5,532	3.4
1997	1,722	5,823	3.4
1998	1,730	6,109	3.5
1999	1,766	6,405	3.6
2000	1,860	6,850	3.7
2001	1,969	7,113	3.6
2002	2,062	7,387	3.6
2003	2,103	7,901	3.8
2004	2,301	8,679	3.8
2005	2,531	9,393	3.7

자료: 國家統計局. 2006. 「中國統計年鑒」. p.74. 中國統計出版社. 및 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2006. 「中國農村統計年鑒」. p.14. 中國統計出版社.

농촌경제의 상대적 쇠퇴가 누적된 결과 1985년 54%였던 도시 개인평균수입에 대한 농촌 개인평균수입의 비중도 1990년에는 45%, 2000년에는 36%로 하락하였다. 도농간 소득 성장률의 격차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시경제정책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각지역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구조와 상품생산구조를 조정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해 주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 농촌의 사회경제 기본지표

(단위: 10,000명, 元)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농촌 총인구	89,590	91,675	92,820	93,751	94,254	94,908
농촌 취업인구	42,010	45,042	47,962	48,971	49,695	50,387
농림목어업 생산액	7,662	20,341	24,916	29,692	36,239	39,451
농촌주민 평균수입	686	1,578	2,253	2,622	2,936	3,255
농촌주민 평균소비	585	1,310	1,670	1,943	2,185	2,555

주: 農林牧漁業 생산액은 萬元

자료: 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中國農村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06, p.9.

표 5. 농촌 빈곤인구의 규모와 비중

(단위: 10,000명, %)

	絶代貧困			低收入		
	표준 (元)	인구규모	인구비중	표준 (元)	인구규모	인구비중
2000	625	3,209	3.5	865	6,213	6.7
2001	630	2,927	3.2	872	6,102	6.6
2002	627	2,820	3.0	869	5,825	6.2
2003	637	2,900	3.1	882	5,617	6.0
2004	668	2,610	2.9	924	4,977	5.3

자료: 中國社會科學經濟研究所, 『“十五”計劃回顧與“十一五”規劃展望』, 中國市場出版社, 2005, p.190.

2.2.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최근 농촌정책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간·도농간·계층간 격차 확대의 문제이다. 중국정부와 공산당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2005년에 실시된 10·5 계획과 2006~2010년에 추진 중인 11·5 계획,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출범한 2002년의 공산당 16대, 2003년의 제10차 전인대는 공통적으로 중국의 일부 연해지역은 이미 샤오강(小康)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전국적인 범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5계획 기간 동안 투입된 중앙정부 재정은 모두 11,300억 위안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달하였다(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2006, p.1).

후진타오 신정부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건설(和諧社會建設)”이다. 2004년 9월 공산당 16기 4중전회에서 처음 제시된 이 목표는 2005년 3월 전인대에서 승인됨으로써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사상’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이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공산당 16기 4중전회는 조화로운 사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민주법치, 공평정의, 신뢰우애, 활력충만, 안정질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사회로서 이것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회로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4위 일체의 사회이다. 셋째, 인민대중의 공동의 염원과 근본이익의 소재인 안정되고 성숙된 표현의 사회이다.³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는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발전이 성장 지상주의와 동부 연안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즉 지역 격차, 도농 격차, 계

³ 한편 2005년 9월 원자바오 총리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5대 과제로 ① 내수 확대를 통한 발전 추진 ② 경제구조조정과 성장방식의 변화 ③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 개발능력의 제고 ④ 교육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인재양성에 주력 ⑤ 각 부문의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10월 공산당 16기 5중전회는 11차 5개년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드디어 선부론을 폐기하고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공부론’ 또는 ‘균부론’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전략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5중전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5개년 경제계획을 경제 ‘규획’으로 개칭 ② 선부론 폐기 ③ 농촌 생활수준 제고 ④ 양보다 질에 치중하는 경제발전 모델 도입 ⑤ 행정관리체계의 개혁 등이 그것이다.

층 격차라는 이른바 삼대격차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반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공산당 16대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장쩌민의 영향 아래 있던 공산당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입각한 선성장 후분배라는 정책우선순위를 견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전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시위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중국은 전례없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겪고 있다. 중국의 31개 지방 자치 단체간 1인당 GDP 격차는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주민의 복리후생수준을 수입으로 환산할 경우 도농간 소득 격차는 6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져 2004년 중에만 공식적으로 7만 4,000건 이상의 시위 및 폭동이 발생하는 등 최근 소득격차 확대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삼농문제가 빈곤 문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깊어가는 인민 내부의 모순과 이해충돌을 해결할 수 없으며, 덩샤오핑 식의 불균형 발전전략이 아니라 모든 계급계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에 후진타오 정부는 도농간·지역간·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여 부문간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과학적 발전관(Scientific Concept of Development)’과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앞세우는 ‘이인위본(以人爲本)’ 이론에 입각하여 이른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새로운 국정목표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개념은 2003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이 광둥성을 방문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후 2004년 9월 16기 4중전회에서 공식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의 질과 사회적 효과, 성장의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시하는 것이 그 주요한 정신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의 변화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잘 나타난다. 11차 계획안은 소득격차의 축소 및 사회보장혜택의 확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효율을 높여 성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로 ‘삼농문제’의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도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사회적 갈등요소의 해소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평가된다.⁴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최근 농촌·농업정책의 핵심은 도시화(城市化)·공업화(産業化)·시장화로 요약된다.⁵ 새로운 농업정책의 골격을 제시한 10·5 계획은 지역간·도

4 삼농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및 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의 보고서 시리즈를 참조. 민간부문의 연구로는 蔡昉(2005), 王偉 외(2007) 등을 참조.

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촌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통해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방 중소도시의 육성과 서부대개발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천명하였다. 농업의 질적 개선과 효율증대를 통한 농민소득 증가의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① 농업 및 농촌경제의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추진하며 ② 농지 관개시설과 농촌의 도로·전력·통신망을 확대함으로써 농촌 인프라 시설을 강화하며 ③ 토지제도의 법제화, 식량 유통체계의 개혁, 농촌 조세제도의 개혁, 향진정부의 기능전환 등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④ 중서부 소수민족지역, 혁명지역, 변경지역 등 빈곤지역에 대한 빈민구제사업을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Cho, 2005, p.77).

도시화(城市化) 전략은 농촌지역의 중소도시(小城鎮)들을 육성하여 도시화 비율을 높임으로써 도농간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1990년의 26%에서 2000년에는 36%까지 높아져 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직도 중국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은 낮은 소득과 도로·전력 등 소비 인프라의 부족으로 내수 위축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점진적인 도시화는 상당한 내수확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도시화의 구체적인 방침은 ① 도시 인프라 건설과 공공 서비스 기능의 완비 등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체계를 형성하고 ② 농촌지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서 중소도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③ 도시와 농촌의 분리(城鄉分隔)를 위해서 유지되던 호구제도를 폐지하여 농촌 잉여 노동력의 지역간 유동을 유도한다는 것 등이다(Cho, 2005, pp76-77).

도시화와 함께 농촌의 시장화도 신정부의 중요한 중점정책 가운데 하나이다.⁶ 농촌 생산요소의 시장화 정도는 2003년 현재 54.2%에서 2005년 61.6%로 높아졌는데, 이는 시장경제의 임계점으로 간주되는 60% 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노동력의 시장화 정도는 73.4%에서 86.6%로 높아졌으며, 토지의 시장화 정도도 44%에서 48%로 자금의 시장화 정도는 45%에서 50%로 높아졌다(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2006, pp.1-2). 시장화에 수반되는 화폐화 정도도 농가소득의 수입 및 지출 모두 80%를 넘어서고 있다(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 2005, p.254).

한편 후진타오 정부는 이미 10·5 계획에서부터 삼농문제의 해결을 국정의 중요한

5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2005, 제3장, pp.181 이하를 참조.

6 최근 중국의 농촌정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장화로 보인다. 농촌 시장화의 최근 실태에 대해서는 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2005),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馮旭芳(2006), 시장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책에 대해서는 熊健珩(2005), 何國平(2007), 농촌사영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成新華(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과제로 제시해 왔는데, 11·5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신농촌건설”로 삼농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주요 방향은 생산력 증대, 생활개선, 문명적 농촌의 건설, 농촌 면모의 일신, 민주적 관리, 점진적 추진 등이며, 구체적 내용은 도농간 경제발전의 통합적 추진, 현대적 농업건설, 농촌공공사업 추진, 농민수입의 증대 등이다. 특히 도농간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농업 및 농민에 대한 대규모 지원보다 불가피한 도시화 및 농촌해체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신농촌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아직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성과를 전망하기에는 이른 듯하다. 다만 농촌지역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3. 향진기업의 최근 성장 추이

3.1. 경제개혁 이후 향진기업의 역할

경제개혁의 선언 이후 중국경제는 시장화와 함께 사유화, 즉 공유제에 기초한 경제로부터 사유제에 기초한 경제로의 개혁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 1978년 당시 산업총생산에서 80%를 넘었던 국유기업의 비중이 1992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세부적으로 보면 공업부문의 성장을 선도한 것은 기존 국유·국영기업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향진기업과 사영기업 및 외국자본에 기반을 둔 비국유기업에서 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개혁개방의 성과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평가해 보면, 치리정돈 이전 단계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에 가장 주요한 기여를 한 것은 바로 향진기업이라고 불리는 농촌의 소규모 경공업들이었다.

원래 향진기업은 1950년대부터 인민공사 운동 당시 ‘사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1984년 인민공사의 해체와 함께 향진기업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향진기업 중에는 사대기업처럼 집체소유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 사영기업 등 사적으로 소유된 기업도 있고, 국유기업이나 외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소유제 기업도 있다. 향진기업 가운데서 소유제적 성격이 집체소유에 속하는 향판기업과

⁷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로는 李云才(2006), 王伟光(2006) 등을 참조.

촌판기업을 합쳐 향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향진기업이란 중앙 정부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농촌지역(鄉·鎮)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1996년 제8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鄉鎮企業法」에 의하면, “향진기업이라 함은 농촌집단 경제조직 혹은 농민이 주 투자자이며, 향진에 위치해, 농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 투자자라 함은 농촌집단 경제조직이나 농민의 투자가 50%를 초과하거나, 설령 50%를 초과하지 못했더라도 주식을 통제할 수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향진기업이 기업법인 조건에 부합하면, 법에 근거해 기업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과거의 농촌공업이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운영되었던 반면, 개혁 이후 새로 생겨난 향진기업은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이용하여 농민 자신을 풍요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농촌의 풍부한 노동력을 적절히 이용했다는 점 등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같은 향진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는 여러 개의 향진기업 모델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강소성 남부 지역의 쑤저우(蘇州), 무스(無錫)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소남(蘇南) 모델, 절강성 원저우(溫州)를 중심으로 한 원저우 모델, 광둥성의 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발전한 주강(珠江) 모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집체형 향진기업, 개체·사영 향진기업, 외향형 향진기업을 대표한다.⁸

⁸ 최근 중국의 향진기업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원저우(溫州) 모델이다. 최근의 연구동향과 자세한 내용은 任柏強·韓紀江(2005), 任曉(2005), 錢明霞(2005), 趙明達(200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소남 모델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洪銀興(2006) 등이 있다.

표 6. 향진기업 개체수 및 종업원 수의 변화

연도	기업 수 (10,000개)	종업원 수 (10,000명)
1978		2,827
1979	148	2,909
1980		3,000
1981	134	2,970
1982	136	3,113
1983	135	3,235
1984	165	3,848
1985	1,223	
1986	1,515	
1987	1,750	
1988	1,888	
1989	1,869	
1990	1,873	
1991	1,909	
1992	2,092	10,625
1993	2,453	12,345
1994	2,494	12,017
1995	2,203	12,862
1996	2,336	13,508
1997	2,015	13,050
1998	2,004	12,537
1999	2,071	12,704
2000	2,085	12,820
2001	2,116	13,086
2002	2,133	13,288
2003	2,185	13,573
2004	2,213	13,866

주: 1983년 이전의 통계는 향판 및 촌판기업의 자료임.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中國農業出版社, 2005, pp.8-9.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향진기업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어 가는데, 그 이유는 중국정부가 개혁의 중심을 도시부문으로 옮겨가면서 향진기업의 성장을 억제한 측면도 있지만, 여러 형태의 사영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의 격화 등으로 도태된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향진기업의 대부분은 주식제 기업으로 개조되거나 사영기업화하였다.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향진기업 수 및 종업원 수는

1994~199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2000년대 들어 다시 완만하지만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3.2. 향진기업의 최근 동향과 역할

1990년대 중반 이후 쇠퇴하던 향진기업의 역할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향진기업의 성장이 중국경제의 최대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삼농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 및 농민소득에서 차지하는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향진기업이다.

표 7. 개방개혁 이후 향진기업 주요지표

단위: 억원

	영업수입	부가가치생산	세금액	이윤총액	자본총액
1978	431	208	22	96	87
1980	596	285	26	126	119
1985	2,566	772	137	247	472
1990	8,614	2,504	313	683	1,130
1995	57,299	14,595	1,280	3,687	4,381
2000	107,834	27,156	1,996	6,482	5,244
2001	116,585	29,356	2,308	6,709	7,732
2002	129,760	32,386	2,694	7,558	8,528
2003	146,783	36,686	3,130	8,575	9,072
2004	166,368	41,185	3,658	9,932	9,756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中國農業出版社, 2005, pp.9-10.

200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가운데 농촌의 비중은 46.2%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다. 이 중 1차 산업의 비중은 12.4%로 0.7%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차 산업은 21.6%로 0.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3차 산업도 12.2%로 0.2%포인트 하락하였다. 2005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9.9% 가운데서 농촌부문의 기여분은 44.2%로 1.3%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 중 1차 산업의 기여분은 6.2%포인트(성장률 중 기여분은 0.61%포인트)로 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2차 산업의 기여분은 30.0%포인트(성장률 기여분 2.97%포인트)로 1.6%포인트 상승하였다. 3차 산업의 경우는 8.0%포인트(0.79%포인트)로 1.5%포인트 하락하였다(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

會統計司, 2006, p.1).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중국의 농촌부문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그중 농촌의 2차 산업만은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농촌경제 회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 농촌경제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아도 2차 산업의 비중은 52.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은 32.6%로 0.5%포인트 하락하였다. 특히 2005년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1.4%인데 공업부문 부가가치 증가율은 13.1%로 평균을 넘는다(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2006, pp. 1-2). 이 때문에 향진기업을 통한 농촌산업의 공업화(産業化)가 삼농문제 해결의 주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나온 「全國鄉鎮企業認真貫徹落實中央1號文件」도 향진기업이 삼농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향진기업의 성장을 통한 농촌의 공업화는 농촌지역의 중소도시들을 육성하여 도시화 비율을 높임으로써 도농간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도시화(城市化)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

최근(2004~2005년) 향진기업의 성장 추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표에서 확인된다. 2004년 전국 향진기업 성장률은 13.98%이며, 그중 공업증가율 14.03%, 영업수입증가율 13.34%, 공업영업수입 증가율은 13.41%이다. 2004년 전국 향진기업 총이익은 9,932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15.88% 성장했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1.9%포인트 더 성장한 것이다. 향진기업 고용자 수 1억 3,90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93만 명 증가하였으며, 향진기업 노동자 보수는 9,756억 위안으로 7.54% 증가하였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5, p.3).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향진기업 고용증가가 전체 신규취업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실업문제와 농민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향진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⁹

⁹ 중국정부는 11·5 계획기간(2006~2010)동안 향진기업의 증가치를 연평균 9.6% 성장으로 계획이 끝나는 2010년에는 79,800억 위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중 공업 증가치는 연평균 10%의 성장을 통해 57,500억 위안까지, 수출은 연평균 11%의 성장으로 3만 4,800억 위안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중국정부의 목표이다. 종업원 수도 매년 2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도록 해 2010년에는 1.5억 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6, pp.5-6). 이 경우 도시 실업률 증가의 주요 원인인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이동을 상당한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실업자와 下崗 노동자를 포함한 중국의 공식 실업자 수는 1,600만명 수준인데, 중국정부의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매년 250만 명씩 5년 동안 1,250만 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물론 중국의 실업률 증가에는 국유기업개혁 등 다른 요인들이 많으므로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향진기업의 성장은 三農問題와 도농간 격차문제의 해결은 물론, 지역간 격차와 도시실업 문제와 같은 계층간 격차의 해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2005년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增加值)은 50,534억위안으로, 이는 10·5 계획 기간 전체(2001~2005)의 목표를 108.2% 달성한 것이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2006, 『中國鄉鎮企業年鑒』, p.3). 2000년 대비 향진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3%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26.8%에서 2005년에는 27.7%로 증가하였다. 그중 공업부문 부가가치 생산액은 3만 5,661억 위안으로 77.4%(연평균 12.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체 공업부문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45.3%에서 2005년에는 46.8%로 상승하였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6, pp.3-4).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수출부문의 약진이다. 2005년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2만 662억 위안으로 2000년에 비해 무려 112.9%(연평균 18.64%)나 증가하였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향진기업의 비중은 33.6%에 이른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6, pp.3-4). 1980년대의 향진기업이 농촌 내의 공산품 수요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수준이었다면, 2000년대의 향진기업은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표 8. 향진기업의 산업별 현황

	전체	산업별 비중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단위 수 (개)	22,495,902	1.83	31.00	67.17%
종업원 수 (명)	142,723,584	2.00	68.77	29.23
부가가치 생산액 (만원)	505,342,521	1.15	76.95	21.90
총생산액 (만원)	2,178,186,027	1.01	80.79	18.20
영업수입 (만원)	2,178,186,027	0.98	76.91	22.11
이윤총액 (만원)	125,186,013	1.25	74.72	24.03
노동자보수 (만원)	111,174,317	1.40	73.74	24.86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中國農業出版社, 2006, p.155-56에서 재계산.

표 9. 향진기업의 형태별 현황

	기업형태별 비중 (%)						
	내자기업					홍콩·마카오· 대만기업	외자기업
	전 체	집체기업	합작/유한/주식회사	사영기업	기 타		
단위 수	99.69	0.78	2.41	20.53	75.97	0.20	0.10
종업원 수	99.40	4.80	18.85	34.79	40.96	3.68	2.34
부가가치생산액	90.41	5.12	19.66	35.13	30.50	4.79	4.79
총생산액	89.82	5.03	20.04	34.51	30.24	4.99	5.19
영업수입	88.64	5.01	19.78	33.93	29.92	4.94	5.23
이윤총액	91.35	5.08	19.02	34.20	33.05	4.13	4.53
노동자보수	90.18	5.39	17.09	35.00	32.70	5.38	4.44

주: 기타는 주로 고용인이 7인 이하인 個體工商戶(개체기업)임.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中國農業出版社, 2006, p.155-56에서 재계산.

이러한 최근 향진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향진기업들의 단위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된 점이다. 대규모 향진공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전체 향진공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현재 46.9%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향진기업의 규모화는 물론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2004년 향진기업 고정자산투자는 1만 4,750억 위안으로 매년 2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2005, 『中國鄉鎮企業年鑒』, pp.3-4).

둘째는 수출의 약진이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2005년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2만 662억 위안으로 2004년 향진기업 수출 1만 6,932억 위안에 비해 22%나 증가하였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6%에 이른다. 수출이 향진기업의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5, pp.3-4 및 2006, pp.155-56.).

셋째는 향진기업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향진기업들의 변화를 보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신형산업, 특색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한 예로 2004년 향진기업 증가치 중 농산물 가공산업과 농촌서비스업의 비중은 29%와 22%로 전년 대비 각각 0.4% 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하였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5, pp.3-4). 넷째, 집적의 이익이다. 즉 향진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과기기업, 외무기업 등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각종 산업단지(園區)에서 향진기업이 창출한 증가치는 전체 향진기업

증가치의 30% 이상이다. 집적의 이익과 함께 지역경제발전과 향진기업의 성장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2004년 향진기업 증가치 중 62.11%가 장강 삼각주, 주장 삼각주, 환발해만 등 삼대 경제구에서 창출되었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5, pp.3-4).

마지막으로, 전체 향진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個體·사영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개체·사영기업 증가치가 전체, 향진기업 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6%에 이른다. 외자기업(港澳台商 투자기업 포함)의 비중도 9.6%에 이른다(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2005, pp.3-4 및 2006, pp.155-56).

4. 맺는 말

최근 중국은 WTO 가입, 공산당과 정부의 지도부 교체 등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경제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21세기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계층간, 지역간, 도농간 격차를 의미하는 이른바 ‘삼대격차’라는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도농간 격차인데, 그 이유는 도농간 격차가 지역간·계층간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농업·농민의 삼농문제 해결은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002년 공산당 16대는 장쩌민 총서기의 재임기간 전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평균 8% 수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향진기업은 중국경제의 성장을 선도해 왔다. 특히 향진기업의 성장은 중국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체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적 최소화하면서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사영기업·외자기업 등의 성장은 향진기업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향진기업은 새로운 성장기를 맞으면서 농촌경제의 핵심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향진기업이 달성한 여러 성과지표들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중국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심에 바로 향진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사실상 향진기업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상태이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1990년대 후반 향진기업의 하락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계기로 국내의 향진기업 및 중국 농촌경제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국내의 농업경제학과 농촌경제학 연구자들께서도 중국농촌의 실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강희정, 최훈. 1994.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연구』. 동아시아연구회.
- 김광익. 1996. 「현대 중국의 향진기업의 발전과 소성진의 사회문화적 변화- 지방수성과 저지양성의 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6권 2호.
- 김시중. 1998. “중국 향진기업의 성장 요인과 전망.”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김호, 박준근. 1996. “중국경제에서 향진기업의 역할과 발전 방향.” 『농업과학기술연구』 제31집.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서석홍. 1994. “경제개혁의 발전 추세와 중국 사회주의의 장래.” 『지역사회연구』 제2집. 지역사회연구회.
- _____. 1995. “중국의 향진기업: 그 발전과 성과 및 과제.” 1995년도 지역사회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지역사회연구회.
- _____. 1999. “중국의 농촌 주식합작기업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7권 1호. 국제지역학회.
- _____. 2000. 「비국유기업의 발전과 역할」. 유희문 외,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 _____. 2002. 「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정재호 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까치.
- 이근, 한동훈. 2002. 『중국의 기업과 경제』. 21세기 북스.
- 이말남. 1999. 「중국 향진기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회.
- 이일영. 1997. 『중국의 경제발전과 농촌개혁』. 서울대출판부.
- 장지용. 2005. “중국 향진기업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중국 산둥대학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조준현. 2003. 『중국의 경제발전과 21세기 발전전략』. 부산대학교 출판부.
- 喬榛 外. 2006. “中國農村經濟分析和政策研究.” 『經濟研究』.
- 中國社會科學經濟研究所. 2005. 「“十五”計劃回顧與“十一五”規劃展望」. 中國市場出版社.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각호.

- 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中國農村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각호.
- 宋圭武. 2004. 「中國鄉村發展研究」. 中國經濟出版社.
- 宋洪遠 外. 2007. 「中國農村經濟制度變遷與農業增長」. 中國農業出版社.
- 成新華. 2006. 「制度變遷與農業私營企業成長」. 中國經濟出版社.
- 溫家寶. 2005. 12. 29. 「關於當前農業和農村工作的幾個問題」.
- 王偉 外. 2007. 「農村經濟發展問題研究」. 中國農業出版社.
- 王偉光. 2006. 「建設社會主義新農村的理論與實踐」. 中共出中央黨校版社.
- 李雲才. 2006. 「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關鍵」. 湖南人民出版社.
- 任柏強·韓紀江. 2005. 5. “論建溫州農民收入持續增長的長效機制.” 「溫州大學學報」.
- 任曉. 2006. 1. “制度轉型的互惠性動力—關於溫州模式.” 「社會科學研究」.
- 張曉山. 2006. 4. “農村改革與發展面臨的新形勢.” 「北方經濟」.
- 全國人民代表者大會. 2006. 3. 14.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 錢明霞. 2005. 3. “常州與溫州民營企業家的比較研究.” 「常州工學院學報」.
- 鄭風田·趙淑芳. 2005. 12. “城鎮化與農民增收的負相關分析.” 「財經問題研究」.
- 程洪寶. 2005. 12. “城市化過程中農轉居與農村集體資產改制問題研究.” 「學術論壇」.
- 趙明達. 2005. 5. “論建溫州家族企業成長與社會資庫的融合.” 「西安財經學院學報」.
- 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國家統計局農村經濟社會統計司. 2006. 「2005~2006年: 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與豫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中國鄉鎮企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鄉鎮企業年鑒」. 각호. 中國農業出版社.
- 蔡昉 編. 2005. 「民生經濟學」.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馮旭芳. 2006. 「農村市場化理論與方法」. 中國經濟出版社.
- 何國平. 2006. 「走向市場」. 中國經濟出版社.
- 何鍊成 主編. 2005. 「中國經濟發展新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洪銀興. 2006. 2. “新蘇南模式及其對建設全面小康社會的意義.” 「江蘇社會科學」.
- Cho Jun-Hyeon. 2007. “The Leadership Change and the New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 After WTO Accession.” China Study. No.3,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5. “An Analysis on the New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Chinese Econom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ssociation of Korean-Chinese Economic & Management, The Journal of Korean-Chinese Economics & Management. vol.8.
- OECD. 2002. China in the World Economy: Synthesis Report. OECD.
- _____. 2003. Asia and China Programmes: Annual Report. OECD.
- _____. 2005. OECD Economic Surveys: China. OECD.
- Wang M. K. (eds.). 2000.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Over 20 Years. Foreign Language Press: Beijing.
- Wen Jiabao. 2004. “Premier Wen delivers government work report.” NPC.

원고 접수일: 2007년 8월 29일
원고 심사일: 2007년 9월 7일
심사 완료일: 2008년 1월 2일